

김윤진 연구원

## 요약

IPMI는 해외 근무자 등이 타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건강보험임. 해외 체류 시 발생 가능한 건강 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여행보험 및 현지건강보험과 유사하지만, IPMI는 장기간 더욱 종합적인 범위의 보장을 거주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제공함. 글로벌 보험그룹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롭게 부상한 건강 관련 니즈를 IPMI에 반영하며 헬스케어 서비스를 강화함. 우리나라 보험 산업 내에서도 해외 장기 체류자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와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음

- International Private Medical Insurance(IPMI)는 해외 근무자 등 장기 체류자가 타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건강보험으로, 세계화 속 해외 이동량 증가에 따라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성장함<sup>1)</sup>
  - IPMI는 주재원이나 국제기구 직원과 같은 해외 근무자(expatriates)를 타겟으로<sup>2)</sup> 글로벌 건강보험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을 의미하며, 보험가입자가 타국에서도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됨
  - 세계화로 해외 파견 및 해외 장기 체류가 증가하면서 IPMI 시장도 동반 성장하였고, 그 결과 IPMI 글로벌 수입보험료 규모는 2000년대 초반 25억 달러에서 2020년 162억 달러(한화 약 20조 원)로 증가함(그림 1) 참고
    - 해외 근무자 수는 2013~2017년 연간 약 5.8%씩 증가하였고 2021년 기준 870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됨<sup>3)</sup>
  -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이동량 감소로 '21년 IPMI 성장둔화가 전망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국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해외 근무자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는 IPMI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1〉 글로벌 IPMI 시장 수입보험료 추이



- 1) Milliman(2020), "IPMI market strategies, winning business models, key success factors and capabilities in a post-COVID-19 world"
- 2) 이외에도 장기 유학생, 부유층 및 고액자산가(HNW individuals)가 타겟 고객군에 포함되어 있음
- 3) Finaccord(2018), "Global Expatriates: Size, Segmentation and Forecast for the Worldwide Market"

○ IPMI는 해외 체류 시 발생 가능한 건강 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여행보험 및 현지건강보험과 유사하나, 보험 기간·지역·범위 측면에서 더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함<sup>4)</sup>(〈표 1〉 참조)

- 여행보험은 단기간(최대 6개월) 내에 발생한 질병 및 상해만을 보장하지만, IPMI는 장기간(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 및 일상적인 건강 위험(시력, 치아 등)까지 보장함
- IPMI는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지건강보험이 지닌 보장지역·보장범위 측면의 제약을 보완함
  - 현지건강보험은 체류 지역 내에서만 보험 이용이 가능하지만, IPMI는 다수 국가에 출장이 예정된 근무자 또는 장기간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예술가 등이 하나의 보험으로 여러 지역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IPMI는 미국처럼 해외 근무자를 위한 공적 의료보험 체계가 없거나 높은 의료비 때문에 소속 기업이 제공하는 기본 사보험만으로 실질적 보장이 부족할 경우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혹은 그 반대로, 근무지가 낙후하여 현지에 가입할 만한 보험이 없거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경우 IPMI에 가입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한 제3국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1〉 여행보험·현지보험(공/사)·IPMI 비교

| 구분   | 여행보험   | 현지건강보험                             |                          | IPMI  |
|------|--|------------------------------------|--------------------------|---|
|      |  | 공보험                                | 사보험                      |   |
| 보험기간 | 단기(6개월 이하)                                     | 장·단기(체류 기간)                        | 장·단기(보험가입 기간)            | 장기(1년 단위 갱신)  |
| 보장지역 | 여행지역으로 제한                                      | 체류 국가 또는 지역으로 제한                   |                          | 글로벌(하나의 보험으로 여러 국가 통합 보장)   |
| 보장범위 | 여행 기간 발생 가능 위험 (예) 여행 중 질병, 상해, 인근 지역 긴급이송 서비스 | 필수·기본 의료 보장/ 사보험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의 질 | 일반 개인 건강보험 보장수준 (국가별 상이) | 일반 개인 건강보험 보장 + 해외 장기 체류자 특화 보장 (예) 정신질환, 임신/출산 관련, 본국/제3국 의료 이송서비스 |

자료: Milliman(2020), iPMIM & Globality Health(2014), Generali Global Health(2019) 등 요약

○ 한편, IPMI 시장은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 및 데이터 인프라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상 진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sup>5)</sup>

- IPMI가 다수 국가에서 통용되는 건강보험인 만큼 IPMI 제공자는 여러 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국가별 의료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또한, 정밀한 보험료 산출 및 청구 관리를 위해 여러 국가의 다양한 위험 수준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 집적 역량이 필요함
- 이처럼 IPMI는 한 국가 내에서만 운영되는 건강보험보다 운영 및 관리체계가 복잡하여 소수의 글로벌 보험그룹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함
  - 2015년 기준 약 10개 글로벌 보험그룹이 전 세계 IPMI 판매량의 약 70%를 차지함

4) iPMIM, Globality Health(2014), "IPMI vs local health insurance: Exclusive international health insurance C-suite executive commentary from Globality Health, ALC Health, GeoBlue, and Cigna Global"; Generali Global Health(2019), "International private medical insurance: A world of opportunity"

5) IPMI Milliman(2015), "A valuable proposition: A look into the international private medical insurance market"

○ IPMI를 판매하는 글로벌 건강보험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롭게 부상한 해외 근무자의 건강관리 니즈를 IPMI에 반영하는 등 헬스케어 서비스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표 2〉 참조)

- Milliman의 낙관적 시나리오(〈그림 1〉 참조)는 해외 이동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IPMI 시장이 다시 큰 폭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관측함
- 이에 글로벌 보험그룹은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환경변화를 기반으로 해외 장기 근무자 여건에 맞춘 정신건강 및 원격의료 서비스 등을 추가하며, 단순한 건강 위험 보장을 넘어 헬스케어 제공자로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음<sup>6)</sup>

〈표 2〉 IPMI 제공 글로벌 보험그룹의 헬스케어 서비스 예시

| 회사명                      | 원격의료(Telehealth)  | 건강관리 프로그램  |
|--------------------------|---|--|
| Aetna International      | • vHealth by Aetna: 모바일, 태블릿, 랩탑으로 의사와 연결하여 치료과정 전반(처방전, 의료상담, 치료옵션 설명)을 지원   | • EAP(Expatriate assistance programme): 해외 거주 직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문화 적응을 도움  |
| Allianz Worldwide Care   | • Allianz Digital Health: IPMI 고객들을 위해 'LiveDoc(원격진료 서비스 업체)', 'MyDoc(디지털 헬스케어 제공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원격의료 상담 서비스 제공              | • 글로벌기업, IGO, NGO 직원 건강관리(질병예방) 프로그램 OLIVE: 당뇨병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 의심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가이드를 제공/ 다양한 디지털 헬스 수단을 활용하여 해외 거주 개인·팀의 건강 목표설정과 달성을 지원   |
| AXA Global Healthcare    | • 유럽AXA는 Advance Medical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외국어가 가능하며 국제 자격증이 있는 의사들의 원격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   | -  |
| Bupa Global              | • Global Virtual Care App: Advance Medical과 파트너십을 맺고 음성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다국적 고객들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                                  | • Everyday Resources: 중소기업 해외 거주 직원의 정신건강을 지원<br>• ASP(Assignment Support Programme): 중소기업 직원들이 건강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무할 국가 의료 시스템과 연계된 맞춤 건강 가이드를 제공/ 해외 거주 기간 동안 건강 계획 수립 지원 |
| Cigna Global             | • Cigna Wellbeing & Cigna Envoy: 24/7 비디오 원격의료 상담 서비스 제공<br>• Buoy Health와 파트너십을 맺어 코로나19 위험을 가입자들이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툴 제공 | • Cigna Global Health and Wellbeing 플랜: 생애 사고에 대한 검진과 검사 비용 보장/ 온라인 건강 교육 및 건강 위험도 평가 등 개인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 Generali Global Health   | • My Digital Doctor: Advance Medical과 파트너십을 통해 전화/영상 원격의료 제공  | • Bria: 웰니스 앱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분석, 위험 요인을 찾아내 건강행동 교정을 지원<br>• 암 진단을 받은 고객의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가입자에게 적합한 치료과정을 선별  |
| United Healthcare Global | • United Health Care & Optum: IT 기술 기반 건강 서비스 및 정보제공  | • My Wellbeing: 개인 맞춤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습관 형성을 지원  |

자료: Milliman(2020), 각 사 홈페이지 내용을 종합함

6) Global Newswire(2021. 6), "World International Health Insurance(IPMI) Market Overview Report 2021"

○ 우리나라 보험산업 내에서도 해외 근무자 등 해외 장기 체류자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중요성이 향후 더욱 커질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대형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해외장기체류 보험'을 통해 해외 체류 시 발생 위험을 최대 1년간 보장하고 있으나, 보험기간이 장기라는 점을 제외하면 단기여행보험의 보장 및 서비스와 큰 차이점은 없어 보임
- 한편, 국내에 진입해 있는 IPMI 업체 Assist Card<sup>7)</sup>는 우리나라 보험가입자가 해외에 장기간 머물 때 24시간 긴급 의료통역, 현지 제휴병원 예약, 인접국·본국 의료이송, 의료비 지불보증,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근무자 등 해외 장기 체류자들에게 건강 관련 리스크가 크게 부각된 만큼, IPMI가 제공하는 보다 종합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이러한 니즈를 인지한 국내 어시스턴스 서비스와 보험 대리점이 파트너십을 맺어, 기본적인 상해질병 보장 이외에 원격진료 및 본국 의료이송 등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는 사례가 보이기 시작함<sup>8)</sup>

---

7) Assist Card는 스위스에서 1972년 설립된 글로벌 어시스턴스 서비스 전문 회사로 2011년 미국 재보험사인 STARR Insurance Companies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1991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국제의료이송 전문기업 EMA Global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의료진 및 항공기 공유)을 통해 2005년부터 국내에 보건/안전 및 보험서비스 제공을 시작함

8) 인슈플러스 웹사이트(<https://www.insuplus.co.kr/html/main/index.php>)